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美 농업에 승리 안겨준 日 합의..그러나 中은 더 큰 승리 가져다줄 것
 - ◇ (POLL)-호주중앙은행, 10 월 회의서 금리 인하 전망..2020 년 초까지 0.5%로
 - ◇ (POLL)-9 월 수출 전년비 -11.2%, 10 개월째 하강..뚜렷한 개선 난망
 - ◇ (초점)-외환당국, 원화 약세 가팔랐던 상반기 개입 내역 오는 30 일 발표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로이터/조나단 언스트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9월27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99.9	-1.0%	-7.0%	-4.1%	유로	1.0938	-0.7%	-4.6%	-4.4%
100엔 대비	1,113.5	-0.4%	-8.8%	-6.9%	엔	107.92	-0.3%	1.5%	2.8%
유로 대비	1,314.7	0.0%	-2.9%	0.2%	위안	7.1310	-0.5%	-3.6%	-5.3%
위안 대비	168.73	-0.3%	-4.1%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6,820.25	-0.4%	15.0%	-5.6%
코스피	2,049.93	-2.0%	0.4%	-17.3%	나스닥	7,939.63	-2.2%	19.7%	-3.9%
코스닥	626.93	-3.4%	-7.2%	-15.4%	S&P500	2,961.79	-1.0%	18.1%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01.85	-1.8%	5.2%	-16.2%
국고채 3Y	1.301%	-3.1bp	-51.6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361%	-3.6bp	-52.3bp	-45.9bp	미국채 2Y	1.638%	-5.0bp	-86.1bp	60.7bp
국고채 10Y	1.438%	-1.7bp	-51.0bp	-52.1bp	미국채 10Y	1.687%	-3.5bp	-100.4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5.91	-3.8%	23.1%	-24.8%	한국 5Y	32.97	0.51	-5.09	-13.74
금(현물)	1,496.56	-1.3%	16.7%	-1.5%	일본 5Y	21.83	-0.93	0.05	-3.34
TR상품지수	2,318.63	0.9%	-2.2%	0.0%	중국 5Y	46.71	3.00	-19.76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9월 30일(월)>

- 통계청, 8월 산업활동동향(08:00)
- 기재부, AMRO 연례협의 결과(15:00)
- 한은, 상반기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16:00)

<10월 1일(화)>

- 한은,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06:00)
- 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기재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8:00)
- 산업부, 9월 수출입동향(09:00)
- 마르키트, IHS 닛케이 한국 9월 제조업 PMI(09:30)

<2일(수)>

- 통계청, 8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 기재부, 국회 국정감사

<3일(목)>

- 공휴일

<4일(금)>

- 한은, 9월말 외환보유액(06:00)
- 기재부,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0:00)
- 한은,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기재부, 국회 국정감사

해외 주요 주간 일정

<9월 30일(월)>

- 일본, 8월 산업생산 잠정치 (8:50)
- 일본, 8월 소매판매 (8:50)
- 중국, 9월 NBS 제조업(비제조업) PMI (10:00)
- 중국, 9월 차이신 제조업 PMI (10:45)
- 일본, 8월 주택착공 (14:00)
- 유로존, 8월 실업률 (18:00)
- 미국, 9월 시카고 PMI (22:45)
- 미국, 9월 델러스연은 제조업지수 (23:30)
- 일본, 8월 건축주문 (미정)

<10월 1일(화)>

- 일본, 8월 실업률 (8:30)
- 일본, 9월 외환보유고 (1~7일 중 발표, 8:50)

- 일본, 3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 (8:50)
- 일본, 9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9:30)
-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결과(13:30)
- 유로존, 9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확정치 (17:00)
-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8:00)
- 미국, 9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확정치 (22:45)
- 미국, 8월 건설지출 (23:00)
- 미국, 9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지수 (23:00)
- 중국, 홍콩 휴장

<2일(수)>

- 일본, 9월 소비자심리지수 (14: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9월 ADP 전국고용동향 (21:15)
- 미국, 9월 공급관리자협회(ISM) 뉴욕지수 (22:45)
- 중국 휴장

<3일(목)>

- 일본, 9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 (9:30)
- 유로존, 9월 마르키트 서비스업 PMI 확정치 (17:00)
- 유로존, 8월 생산자물가 (18:00)
- 유로존, 8월 소매판매 (18:00)
- 미국, 9월 챌린저해고건수 (20: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9월 마르키트 서비스업 PMI 확정치 (22:45)
- 미국, 8월 내구재주문 수정치 (23:00)
- 미국, 8월 공장주문 (23:00)
- 중국, 독일 휴장

<4일(금)>

- 미국, 9월 전미 차량(트럭) 판매 (4~11일)
- 미국, 9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21:30)
- 미국, 9월 실업률 (21:30)
- 미국, 8월 무역수지 (21:30)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고용 및 물가 주제 토론 행사에서 개회사(5일 오전 3시)
- 중국 휴장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이번 주에는 중요한 국내외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는 만큼 각각의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달러/원 환율은 상승추세를 굳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90-1220 원**이다.
- 이번 주는 국내외 경제 여건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 발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국내 지표로는 **8월 산업활동동향(30일)**, **9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수출입 잠정치**,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1일)** 등이 발표된다.
- 한편 주중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주요 인사들의 연설이 다수 예정돼 있어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출렁일 수 있다.
- 또한 4일에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가이드스가 발표된다. 이번 실적을 통해 반도체 업황 바닥론을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과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같은 날에는 미국의 9월 비농업 부문 고용 결과도 나온다.
-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불협화음이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관련 헤드라인에 따른 변동성 확대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완화는 위안화 흐름을 쫓으며 변동성을 확대하는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 최근 수급과 심리가 환율 상승에 우호적으로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중에 나올 펀더멘털 지표 결과에 따라 환율 상승 추세는 더욱 강화되며 변동성을 부추길 수 있어 보인다.
- 한편 30일 오후 4시에는 상반기 외환당국 개입 내역이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급격한 완화 약속이 나타났던 상반기 동안 외환당국의 대응을 대략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분기말 자금환매 이슈 마무리,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확대 등에 힘입어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8월 말 이후 소외됐던 단기물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분기말 자금환매가 마무리된 데다 10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여파다. 주초에는 대규모 통안채 만기까지 돌아오는 만큼 분위기가 더 빠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 나온다. 9월에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던 만큼 레벨도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다. 2년물과 3년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장기물은 글로벌 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불확실성, 다시 고조되기 시작한 미중 갈등 등이 미국 국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진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에 대한 수요가 좀 더 강해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
 - 통계청은 1일 산업생산, 2일 소비자물가를 연달아 발표한다. 한은이 이미 9월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를 보일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진입 가능성이 커 보인다.
 - 2일에는 통안채 2년물 8조 3100억 원의 만기가 예정돼 있어 주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말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어 주말로 갈수록 경제심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칼럼)-美 농업에 승리 안겨준 日 합의..그러나 中은 더 큰 승리 가져다줄 것

(※ 이 칼럼은 캐런 브라운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트 콜린스, 콜로라도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년여 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국 농민과 목장주들에게 승리를 전하기 위해 혈안이 돼 왔다. 25일 이뤄진 일본과의 협정으로 도 미국의 수출은 늘 수 있지만 중국과의 농산물 거래 재개는 미국에게 더 크고 더 필요한 승리를 가져다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과 일본산 기계장비 및 다른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제한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70억 달러 규모의 일본 시장이 소고기, 돼지고기, 밀, 치즈 등을 포함한 미국 농산품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 농업 무역의 초석이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수입의 25%를 차지하는 일본 최대의 식품 및 농산물 공급국이다. 일본은 미국산 밀과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옥수수과 돼지고기 수입에 있어서는 두 번째이며, 콩과 유제품에서도 5 위권 내에 있다.

양측은 4 개월 내로 협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며 그 사이 초기 협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제할 계획이다.

◆ 합의 영향은 제한적?

미국이 일본의 최대 농산품 공급국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일 무역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우위를 점한 다른 수출국들의 중요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캐나다, 멕시코, 호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은 2018년 12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2019년 2월 일본-EU 경제동반자협정으로 미국산 제품에 비해 관세를 우대받고 있다. CPTPP는 미국을 포함하지 않는다.

호주는 2019년 상반기 전체 일본 수입량의 40%를 공급한 일본의 최대 소고기 공급국이다. 미국은 24%로 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EU는 일본 돼지고기의 33%를 공급했으며, 미국은 32%를 공급했다. 미국 옥수수는 평균적으로 일본 연간 옥수수 수입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무역 관세 측면에서 미국이 일본의 다른 공급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하게 된다면 미국 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역 협정 없이도 작년 미국의 대일 수출은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미국의 옥수수와 밀 같은 벌크상품 수출은 2120만 톤에 달해 8년래 고점을 기록했다. 2018년 전체 대일 농산품 수출액은 129억 달러에 달했다. 2014년 이후 최고치다.

2019년 첫 7개월 동안 전체 수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가격과 작년에 비해 증가한 다른 나라에서의 공급 등 정상적인 시장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70억 달러의 새로운 시장 발언은 현재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미국 농산물의 관세가 이제 인하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2018년 총 수출액이 130억 달러에 못 미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산업 규모가 70억 달러 증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0억 달러라는 규모 또한 상품의 시장가치에 달려 있어 조금 느슨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12년에 비해 2018년 일본에 50% 더 많은 옥수수를 수출했지만 2012년 당시 옥수수 수출액이 3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작년 수출액은 28억 달러였다.

◆ 중국의 더 많은 가능성

일본은 지난해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에서 중국을 제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불과 2년여 전만 해도 중국은 모든 국가들을 앞질렀다.

일본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간 계속되는 무역 긴장으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급감했고, 타격 또한 확실했다. 미국의 작년 대중 농산물 수출액은 91억 5000만 달러로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2017년에 비해서는 53% 하락한 수준이다.

중국이 최대 구매국이었던 때문에 미국의 대두 재배농가는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2018-19년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3% 감소했으며 2016-17년 대비로는 63% 줄었다. 2017년 미국의 대중 대두 수출은 총 122억 달러로 그 해 전체 농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지방 종자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2018년에는 31억 달러로 급감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의 무역 지원금 지급은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계 사람들은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이 아니며, 미국 농부들이 생산 결정을 내릴 때 시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주요 수수 수입국이였다. 그러나 무역 분쟁 이후 사료용 곡물 수입은 거의 없었다. 2019년 1~7월, 대중 수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은 29% 감소했다.

중국 또한 미국으로부터 옥수수 주정박(DDGS)을 사들였지만, 2016년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로 중국은 사료 재료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거래를 중단시켰다. DDGS는 옥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로, 중국은 과거 연간 DDGS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POLL)-호주중앙은행, 10월 회의서 금리 인하 전망..2020년 초까지 0.5%로 내릴 듯

시드니 (로이터) - 호주중앙은행(RBA)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둔화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다음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75%까지 인하하고 2020년 초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로이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이코노미스트 중 71%인 35명 중 25명은 RBA가 10월 1일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응답자 37명은 2020년까지 금리가 0.5%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호주 기준금리의 하한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7월 조사에서는 오직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골드만삭스만이 이를 예상했다.

이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은 10월 인하를 74%로 반영하고 있는 선물시장 움직임과 일치한다. 이후 금리는 2020년 3월 0.5%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주 필립 로우 RBA 총재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10월 회의에서 위원회가 필요성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하자 10월 금리 인하 전망은 강화됐다.

조지 타레누 UBS 이코노미스트는 노트에서 "로우 총재는 10월 금리 인하를 거의 예약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실업률 상승과 세계 중앙은행들의 추가 완화를 고려할 때 RBA가 10월 금리를 25bp 인하한 후 2020년 2월, 2020년 5월에 금리를 25bp씩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타레누 이코노미스트는 "로우 총재의 발언으로 RBA의 10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줄었지만 만약 이

번에 동결한다면 11월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경제성장을 둔화, 부진한 인플레이션, 흔들리는 부동산시장, 실업률 상승 등으로 호주의 경제 리스크가 확대되자 바클레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스탠다드차타드 등의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르면 크리스마스까지 금리가 0.5%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OLL)-9월 수출 전년비 -11.2%, 10개월째 하강.. 뚜렷한 개선 난망

서울 (로이터) - 작년 12월부터 계속된 수출 감소세가 9월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감소율 또한 9달 연속 두 자릿수가 예상되면서 당분간 수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가 국내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월 한국 수출(중간값)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수입은 3.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8월(-13.8%)보다 감소폭은 약간 줄겠지만, 두 자릿수 감소율은 9달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본격적인 수출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국 수출을 떠받치는 두 축인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전년 대비 조업일수 증가에도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주요국 제조업 PMI 부진 영향에 두 자릿수 마이너스 증가율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말로 갈수록 수출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 감소율이 점차 축소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도 있고, 수출 단가도 다소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아직 미-중 무역갈등 해소 시그널이 뚜렷하지 않지만 기저효과 영향으로 4분기 들면서 수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거나 보험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이 안갯 속에 있는 가운데 약화한 글로벌 교역 여건이 당장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한국 수출의 뚜렷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마 티에임 DBS 이코노미스트는 "지속되는 글로벌 성장 둔화, 한국의 대일본 무역마찰 및 미-중 무역긴장을 감안하면 한국 수출이 의미있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초점)-외환당국, 원화 약세 가팔랐던 상반기 개입 내역 오는 30일 발표..순매도 규모 촉각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원화 약세 우려가 컸던 상반기 외환당국의 대응 강도를 엿볼 수 있는 개입 내역 공개 시점이 임박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개입 정보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처음으로 작년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시장참가자들은 외환당국의 최초 개입 내역 공개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 그쳤다. 결과에 대한 궁금증은 크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하반기 동안 달러/원 진폭이 40원 수준에 그치면서 변동성이 제한됐던 터라 당국 스탠스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는 다르다. 원화가 약세 변동성을 대거 키웠고 이에 대한 외환당국의 직간접적인 대응이 가시화됐던 만큼 상반기 외환시장 개입 결과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약세 일변도였던 원화..순매도 규모 주목

올해 상반기 원화는 그야말로 약세 일변도였다. 미-중 무역긴장 수위가 절정에 이르고, 국내 수출 부진을 비롯한 한국 경제 둔화 우려가 단기간 내 원화 약세를 자극하면서 연간 기준 원화 절하폭은 최대 7% 수준까지 확대됐다. 절하폭 기준으로 아시아 통화 중 원화가 단연 선두를 달렸다.

원화 약세폭과 속도가 가팔라지자 어김없이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이에 외환당국은 구두개입과 함께 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렇다 보니 올해 상반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결과에 대한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지난번 개입내역은 김 빠진 콜라 같았는데 이번에는 셀 내역이 (어떻게) 보여질지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공개된 작년 하반기 시장 개입 결과는 1.87억달러 순매도였다. 이는 현·선물환시장에 대한 개입 순증 규모다. 한편 같은 기간 외환보유액이 33.9억달러 증가한 반면 당국 보유 선물환 규모는 35억달러 감소해 규모상 총 1.1억달러 줄어들었다.

한편 올해 6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작년말 대비 6.2억달러, 선물환 포지션은 21.2억달러 각각 줄어 총 27.4억달러 가량 축소됐다. 물론 외환보유액은 외환자산의 달러화 환산에 따른 평가익과 매매익 등 여러 변수가 있지만 글로벌 달러가 상반기 동안 대체로 안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외환보유액과 선물환 수치 변동을 통해 외환당국의 순매도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만약 상반기 개입 순매도 규모가 이와 비슷한 수치로 나온다면 사실상 외환당국이 원화 약세 변동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했던 대응 강도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다른 은행 외환딜러는 "시장이 실제 추정하는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개되는 개입 정보가 외환 순거래내역인 만큼 보다 자세한 당국 개입 행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가운데 특히 시장참가자들은 당국이 세밀하게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을 관리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추정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전문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에 따른 불안심리는 차단해야 하니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했겠지만 위기의 척도인 외환보유액 관리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